

검찰수사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기각된 구속영장, 검찰의 실마리는?

지난 3일 새벽, 긴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추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한 말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즉각 석방됐으며,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농단 수사는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 두 번째 소환당시 정유라의 모습

지난달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이하 정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정 씨는 한국시각으로 30일 오후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출발하여 31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지 150일 만이다. 입국장에서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세례에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그녀는 “아이가 가족도 없이 혼자 오래 있다 보니 빨리 오해를 풀고 해결하는 게 나올 것 같아 한국에 들어왔다”며 아이 때문에 입국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시했다. 정 씨는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며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면서 “계속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전 남편, 마필관리사, 아들의 보모를 잇달아 조사했는데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관심이 있다. 정 씨

의 아들이 영장 재청구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정 씨 측이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박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입장에선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정 씨에 대한 영장기각과 어린 아들의 귀국으로 더욱 구속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국정농단 재수사의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흩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나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국민으로서의 책임이며,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우들을 포함한 온 국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영유하는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김동석 편집장
r_esun_z@naver.com

피부색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로!



▲ 한국 민속촌에서

5월 27일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에서는 외국인 학우들과 한국인 학우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날에는 외국인 학우 15명, 한국인 학우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용주교수가 인솔자로서 동행하였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는 한국 민속촌에서 진행되었다.

10시에 학교를 출발한 이들은 약 40분 정도 걸려 한국 민속촌에 도착하였다. 버스에 내린 학우들은 친구들과의 견학에 한층 들뜬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흔치 않아서 그런지 이국의 학우들 사이에서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일부 보이기도 했다. 도착한 후 진행된 첫 번째 일정은 결혼식 관람이

었다. 결혼식에서는 한국의 전통 결혼 의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외국인 학우들은 한국의 전통 옷들과 전통 혼례 의

식을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 외국인 학우들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실제 말에 타 볼 수는 없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문화를 마음에 담으려 했다. 아침 일정이 끝난 후 학우들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은 비빔밥이었는데 외국인 학우, 한국인 학우 할 것 없이 모두에게서 한국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학우들은 자유롭게 한국 민속촌을 둘러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4시 15분쯤 다시 모였을 때는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아침보다 서로 돈독해진 모습이었으며 아침에 보이던 어색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 17학번 nickolas 학우는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was very traditional and we can never usually see traditional stuff like that outside.” 라며 이번 견학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백연 기자
zzangcby@naver.com

CODE NAME 007 : 테마여행

5월 마지막 주말 경영 대학 단과 학생회 CODE가 경영대학 학우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야심찬 여행을 준비했다. 총 네 개의 여행을 준비했는데 각 여행마다 서로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다.

1. A Spring Camping & Festival

마지막 5월 주말...이렇게 보내긴
아쉽다!!
캠핑이 난지 내가 캠핑이지 모르겠따~
누구보다 재밌게 당일치기 or 1박 2일
YOUR CHOICE~
놀사람들 모여랏!!! 조기모집종료 주의

2. 놀준비혜화

어머 대학생 여행은 내일로라고?
아니야~ 파릇파릇 청춘의 필수 데이트
코스, 대학로로 함께 떠나자!

3. 우리들은 (대학교) 1학년

우리가 벌써 어른이라구
오늘만큼은 어른이 할거야
맘마먹고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타고
어른이 될 때 까지 귀엽게 놀자

4. YOUTH :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지겹잖아ㅠㅠ
곧 시험기간인데 스트레스받기 전에
힐링하러 가자! 우리와 함께 청춘을
즐기러 떠나 보는건 어때?? 너는 청춘을
즐길 때 가장 아름다워

네 가지 여행은 모두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1박 2일 혹은 당일로 이루어진다. A Spring Camping & Festival 은 난지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난다. 캠핑장에서 튜브스터를 타고 하늘공원을 산책한 후 바비큐 파티로 배를 채운 후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 여행은 인기가 매우 많아 가장 빨리 신청 마감된 여행이다. '놀준비혜화'는 낙산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혜화벽화마을에서 옛날 교복을 입고 인생사진을 찍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우리들은 (대학교) 1학년은 대략 10년 전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 서울 대 공원에 가서 코끼리 열차도 타고 스카이라이프를 즐기는 여행이다. YOUTH :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여행은 '디뮤지엄'과 뚝섬에 가서 여행을 즐긴다.

이번 테마여행에 참가한 학우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신청하지 못 했거나, 떨어져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과대 체육대회부터 이번 테마여행까지 단과대학 학생회 - CODE의 노력으로 학우들이 정말 재미있고 유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을 느끼며 감사의 말을 전한다.

김기현 기자

실리콘 벨리 인턴십 프로그램

가자 ! 실리콘벨리로 !

2017년 1월,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 트랙의 최서호, 이재호, 조현세, 김서현, 송완호 5명의 학우가 실리콘 벨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미국 실리콘 벨리는 스타트업 즉, 소규모 창업의 산실이다. 무엇보다 창업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학우들에게 서로 다른 IT 기업에 배치돼 실질적인 경영과정에 참여하며, 단순히 서류 복사 같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실리콘 벨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현세, 최서호 학우

5월 4일, 실리콘 벨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조현세 학우를 만나 실리콘 벨리에서의 4개월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실리콘 벨리에서 하신 활동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WESTMONT COLLEGE in San Francisco에서 westmont college 학우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어요. Just business 주도하에 Invention Hub에 위치한 각 스타트업 기업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했고, 매주 실제 기업들의 강연 (Meet-up)에 참여하여 경영지식을 배우기도 했어요.

Q. 어느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나요 ?

A. 저는 1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BrandFlask 라는 기업에서 인턴을 했어요. BrandFlask는 각 패션 데이터를 모아 기업 내의 AI,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 패션업계에 진출하는 회사들에게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회사가 여성 패션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데이터 구매를 요구하면 기존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현재 trend 등을 모두 종합해서 신규 회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Top5 수익 모델 차트 만들기, 사람들의 Lifestyle 조사 후 각각의 Lifestyle과 연관된 패션 차트 만드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Q. 실리콘 벨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얻은 점과 느낀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떤가요?

A. 네. 정말 유익한 4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실제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해봄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의 운영방식을 알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각각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실리콘 벨리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계속하여 변화하는 기술, 정보들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해요. 그렇기에 창업 방법과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배울 수 있었어요. 또한,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들의 문화를 옆에서 느껴봄으로써 미래에 기업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수빈 기자
dltnqls442@naver.com